

# 교수능력 개발

● ● ● 이 용 남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수의 교수능력 개발에는 교수 자신의 의지 및 노력과 함께 대학 당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수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학 서적 탐독, 조언 및 자문 구하기,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우수 수업 관찰 및 실천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당국으로서는 각종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I. 서언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대학교수의 핵심적인 역할은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훌륭한 연구능력과 업적을 인정받아야 하고, 또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이 연구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면 누구나 연구자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능력은 연구를 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수라 하면 연구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가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후자의 측면에서는 대학 당국이나 대학교수가 되려는 사람 모두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혹

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교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은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교수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양성기관조차 거치지 않은 사람은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물론 처음부터 교수 능력들을 배우지 않고도 대학교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의 교수능력 개발을 위해 대학 당국이나 개인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신입교수를 채용하고 나서 며칠간에 걸쳐 세미나나 워크숍 등의 형태로 이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있고, 또 교육발전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학교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능력을 개

말하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대학교수가 교수자로서 수업을 잘 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수업능력 개발

### 1. 수업계획서 작성법

모든 일에 계획이 필요하듯이 대학에서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하고, 또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교수가 수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면, 교수 자신에게는 이번 학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할 구속력을 가지며, 학생들에게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어 예습, 과제, 평가에 대한 대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수업계획서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강의계획서라고 하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강의란 교수법의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업계획서는 어떤 표준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업계획서에는 대체로 교과 명칭, 교과 번호, 담당교수의 성명, 소속, 전화, 연구실 소재 및 메일 주소, 교양 및 전공 여부, 필수 및 선택 여부, 선수교과 여부, 학점, 수업 시간, 교과 목표, 학습 내용, 주별 수업진도 계획, 교수법, 과제, 평가 방법, 주교재, 참고 문헌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한 두 페이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나 각 대학에서는 우수 수업계획서를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교육목표 진술법

어느 활동에나 목표가 있듯이 교육에도 목표가 있다. 교육목표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 주려고 의도하는 능력 또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대상이다. 교육목표에는 교과별, 단원별, 수업시간별 목표가 있다. 이 중에서 교과별 목표나 단원별 목표는 수업계획서에 미리 진술해 두는 것이 좋고, 시간별 목표는 수업시간 초에 고지해 주거나 칠판에 판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교육목표를 진술하는 방법에는 교육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합의된 점이 있다. 첫째, 교육목표는 추상적·일반적 목표와 구체적·명세적 목표로 나누고, 일반적 목표를 먼저 진술한 다음, 그 하위목표로서 구체적 목표를 진술한다. 둘째,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성취할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의 행동으로 진술한다. 셋째, 교육목표는 학습 내용과 함께 그것을 배웠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행동으로 진술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수업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은) 전자에 관련된 기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 1-1) 용어의 정의를 쓴다.
- 1-2) 뜻이 비슷한 용어들을 구별한다.

### 3. 학습자 진단법

모든 교육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잘 진단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현재 상태에는 얼마나 공부하려고 하는가의 학습동기 정도와 현재 배우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전까지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학습 정도가 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가르쳐도 학생들의 동기가 약하면 학습효과가 없으며, 현재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전학습이 불충분하면 수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은 이 두 가지를 진단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먼저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과제나 내용을 배우는 의의나 중요성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현재의 지적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과제를 제시하여 지적 호기심이나 흥미가 유발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전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기초능력을 파악하는 방법과 매 시간 초에 지난 시간에

대학교수들의 능력개발에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교수방법 및 기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교수방법 또는 교수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학 문헌들이 있으므로 해당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를 실제 교과교육에 적용하여 경험을 쌓음으로써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배운 것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거나 문제를 주고 답하게 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학기 초에 진단평가한 결과는 해당 교과교육의 출발선을 알려 주며, 매 시간 진단한 결과는 결손 부분이 있을 경우 교정 및 보충을 통하여 학습 결손을 막고 새 출발하자는 것이다.

#### 4. 교수방법 및 기법

현재 대학교수들의 능력개발에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교수방법 및 기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교수방법 또는 교수법(teaching method)이란 모든 교육자가 모든 교과에 걸쳐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절차로서 예를 들면 강의법, 토의법, 문답법, 개인지도 등의 전통적 교수방법과 팀 교수제, 켈러(Keller) 계획, 녹음 교수체제, 개인 연구 등 최근에 대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이 있다. 이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학 문헌들이 있으므로 해당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를 실제 교과교육에 적용하여 경험을 쌓음으로써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기법(teaching technique)이란 특정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언어교과의 시 감상법이나 작문법, 수학의 기하학이나 미적분 방정식 해결법, 물리의 광학 실험법, 미술의 데생법, 체육의 수영법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교과별, 그리고 교과 내에서도 영역별, 또한 교수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각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 어느 기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는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교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학자나 각 전공 교육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 5. 교수매체 활용법

우리는 교수매체라 하면 대체로 사진, 그림, 책, TV, 컴퓨터, OHP 등 시청각 매체를 연상하기 쉽다. 특히 컴퓨터는 그 엄청난 기능으로 인해 현재는 가장 강력한 교수매체가 되어 컴퓨터 관리 및 보조 수업, 재택 학습, 가상 교육 등 교수매체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이 교수매체인 것은 사실이고, 또 현대

수업에 있어서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쉽다. 특히 현재의 대학생들은 컴퓨터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대학교수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교수매체는 교육자 자신이며, 시청각 매체는 어디까지나 보조물에 불과한데 교수들은 흔히 이 점을 잘 망각한다. 교육은 교육자와 학생이 직접 만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표면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모두 온전히 주고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수는 시청각 매체의 활용에 앞서 교수매체로서의 교수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교육자는 강단에서 학생들과 가까이, 그리고 강단의 가운데에 서서, 학생들을 정면으로 보고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수도 이런 점을 수업 시간에 의식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6. 교육평가 방법

대학교수의 수업과 관련된 교육평가에는 학습평가와 교수평가가 있다. 전자는 대학생들의 학습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학기 초나 수업 시간 초에 사전학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평가, 수업 시간 말미에 해당 시간에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형성평가, 그리고 수업의 대단원이 끝났을 때 성적을 내기 위해 학기 중간이나 기말에 실시하는 총괄평가가 있다. 또한 학습평가에는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순위에 따라 성적을 매기는 상대평가가 있으며, 이 모두에 해당되는 평가문항의 형식으로서 객관식평가와 주관식평가가 있다. 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교육학 서적을 탐독하거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숙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수평가는 대체로 한 학기 수업이 끝난 뒤에 교수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흔히 대학에서는 강의평가라 하는데, 이는 강의계획서처럼 잘못된 개념이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원래 교수들의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개선점을 찾는 데 주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례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교수자 신이나 대학의 사정에 맞는 평가형식을 개발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Ⅲ. 결론

이상에서는 대학교수의 교수능력, 특히 수업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수업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논의하였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교수능력 개발에는 교수 자신의 의지 및 노력과 함께 대학 당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수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학 서적 탐독, 조언 및 자문 구하기,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우수 수업 관찰 및 실천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당국으로서는 각종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외국 대학에서는 교수 개인들의 교수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를 마련하여 여러 가지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 교수 포트폴리오란 수업활동서 또는 교수이력서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수로서의 성취도 및 전문성 개발에 관한 교수 개인별 기록물이다. 즉 이것

은 교수의 성취 수준, 능력과 활동 범위, 향상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교수의 능력으로서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일차적인 지도 조언을 하는 상담자이므로 이에 대한 능력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점을 참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 이용남

전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류교수 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문교수,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교육학과 교육(공저)』, 『신교육의 이해(공저)』, 『교육 리더십(공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교육학의 연구전형 탐구”, “학교안의 교육과 심리: 교육심리학의 정체성 비판”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